

디지털도서관의 정책과 제도의 분석

Analysis of Policy and System for Digital Library

심 호 정*

Hyo Jung Sim

차 례

- | | |
|---------------------|--------|
| 1. 서 론 | 4. 결 론 |
| 2.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필요성 | · 참고문헌 |
| 3.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 분석 | |

초 록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추진중인 디지털도서관 사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계획중인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이념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 워 드

디지털도서관, 도서관정보화, 디지털도서관 정책, 디지털도서관 제도

* 성균관대 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한국도서관협회
(A candidate for the Ph. D.,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 Librarian, Reporter, Korean Library Association, shjcap@hitel.net)

· 논문접수일자 : 2003년 2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 2003년 3월 6일

ABSTRACT

The purpose of digital library is realized knowledge-based society through library. This paper review analysis of policy and system for digital library promotion and plan. So it consider an idea and goal of digital library carefully and propose a direction of the future.

KEYWORDS

Digital Library, Library Information Infrastructure, Digital Library Policy, Digital Library System

1. 서 론

정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국가의 핵심적 정책으로 삼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즉,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각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였다. 특히 1994년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1개의 사업에 1,637억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정보통신부 2000a). 1995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계획이었다. 또한 1999년에는 총 27개 과제에 337억원을 지원하여 총체적인 정보화 추진 기반을 다시 마련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CYBER KOREA 21'이라는 사업명으로 22개 분야에 총 1조7,426억원의 자금을 투

입하여 국가의 정보화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정보통신부 2000b). 2002년 4월 정부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정보화와 민간 부문 정보화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도서관정보화 정책은 국가 정보화 정책 중 한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정책의 주요부문으로 디지털도서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 사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도서관 사업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청와대 보고를 통해 국가의 정보화 정책으로 확정된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국공립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 등이다. 최근에는 산발적이거나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까지 추진되는 등 도서관정보

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계획중인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디지털도서관의 이념과 목표를 다시금 새겨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필요성

미래의 도서관은 학자들의 학문배경과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기술 수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왔다. 처음에는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 벽이 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 미래형 도서관(future library), 논리도서관(logical library)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랑카스터가 1981년 그의 논문에서“ 인쇄지면의 전자식 전환”을 언급한 이래로 전자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1990년 초부터 미국 정부가 전자도서관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전자디지털도서관(electronic digital library), 가상현실도서관(virtual reality library), 네트워크도서관(networked library), 멀티미디어도서관(multimedia library)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사용했으나, 그 의미를 보면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최석두 1995).

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 컴퓨터

를 매개체로 하여 전자출판기술, 데이터베이스기술, 정보검색기술에 의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조직화하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원격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을 다양하도록 한 도서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디지털도서관이 부각된 요인은 첫째, 무한히 증대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며, 셋째,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 넷째,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원문 및 음성, 영상을 포함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수요가 급증하며, 다섯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섯째, 지식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디지털도서관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도서관이 이전의 도서관들과 다른 유형의 도서관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디지털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이념과 원칙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장해가면서,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발전 양상을 적절히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 분석

3.1 추진체제

현재 디지털도서관 사업은 첫째,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추진 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소장자료DB구축, 원문DB구축 사업,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이 있다. 셋째,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전자도서관 사업이 있다. 위의 사업들은 총괄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예산과 인력확충 지원 등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2002년 8월에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2002년 11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활성화방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전문도서관 사업,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대내 도서관(자료실) 설치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3.2 주요 사업

3.2.1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국가의 전자도서관 사업은 1996년 발표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0대 과제 사업 중 하나로 '지식기반고도화를 위한 학술·연

구정보 이용환경조성'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97년에는 1차 전자도서관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의 5개 기관이 도서목록DB구축과 네트워크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분야별특화전자도서관으로 2000년까지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연구원이 추가로 참여하였고, DB구축 범위 확대 및 1차 전자도서관 사업의 시스템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2차 전자도서관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은 크게 DB구축, 시스템구축, 공동활용, 관련제도정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심효정 2002a). 1999년에는 'CYBER KOREA 21'이라는 사업명 아래 국가의 지식정보를 DB화하는 전담기관 설립과 학술논문 및 주요자료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를 통한 과학기술전자도서관 사업에 주력하였고,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시스템의 개발 운영과 전국도서관 전산망 연결 및 전산기기의 운영, 교육부를 통한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및 목차DB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3월에는 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이 발표되어 3년 동안 3,068억원(국고 1,670억, 지방비 1,398억)을 투입해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충에 나섰다. 2001년부터 추진된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은 원문을 중심으로 한 검색기능 제공,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 중심, Z39.50 프로토콜 외에 메타검색 기능 제공, 안방자료실

구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저작권 관리, 암호화·부호화, 이용료 부과 기능 구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원문 DB구축 대상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출판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10인으로 '원문DB구축위원회'를 구성, 각 공공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구축 대상자료를 심의·선정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계속적으로 디지털자료의 확충과 학회지, Web DB, e-Book, 전산장비 도입,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의 경량화사업, 출판예정자료표준목록(e-CIP) 및 온라인저작물 수집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다. 2003년에는 현재 개발·운영중인 통합정보시스템,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기능 확장 및 신기술 도입,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국가주요자료 백업센터 구축, 국가자료 유니코드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추진될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1,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오프라인 출판물 및 온라인 전자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체계적으로 출판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 시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국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형태의 문헌정보를 디지털형태로 보존·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의

DB구축 현황은 목록정보와 본문정보 위주로 구축되었는데, 본문정보보다는 목록정보가 더 많이 구축되었고, 본문정보와 목록정보 모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가장 많이 구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 발간자료와 1945년 이전 신문을, 국회도서관은 해외소재 한국학관련자료를,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KAIST)은 해외학술전자저널을,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판례와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발간자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분야 국내학회지 원문정보와 한국특허 정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해외박사학위논문과 전국 대학도서관 학술정보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국가전자도서관 200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은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선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이라는 큰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추진된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의 경우 목록DB구축에 편중된 투자방식, 중복·유사 업무에 대한 검토 미비, 역할분담 및 관련기관간 협조 부족, 이용자 연구 부족, 수행기간의 부족, 시스템의 안정성, 호환성, 연동성 결여, 예산 부족, 전담요원 부족, 구축된 정보의 질적 수준 미흡, 저작권 문제로 제한적인 디지털자료 공유 등의 문제점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심효정 2002a).

3.2.2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은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2000-2002)'의 한 부분으로 문화관광부 주관 아래 국립중앙

도서관이 사업을 맡아 전국 400여개 공공 도서관에 약 349억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투입되는데 국비는 전국도서관 간의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서버와 운영 소프트웨어 지원에, 지방비는 네트워크, 인테리어, PC 등 환경조성에 투입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 9월 8일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LG-EDS시스템과 (주)ECO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LG-EDS는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 설치를, ECO는 KOLAS II 및 KOLIS-NET 설치를 담당했다. 1단계 사업은 2001년 9월 8일부터 2001년 12월 10일까지 지방비를 확보한 4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160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차 사업 종료 시 디지털자료실이 구축된 도서관은 144개관으로서 당초 목표 200개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도서관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방재정이 열악해 국비에 대응하는 수준의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2002).

2003년 초부터 삼성SDS가 주관사업자가 되어 나머지 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는 2차 사업은 2003년 6월 완료될 계획이다. 2차 사업에서는 좀 더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자료실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농어촌지역 도서관은 도시지역보다 정보화기반시설이 취약한 만

큼 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센터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일반지역과 달리 농어촌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비율을 높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은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자들의 정보화 기반시설로 만들기 위해 관내에 특정 공간(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 컴퓨터를 들여놓고 LAN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설치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대해 2001년 12월 (주)한국정보감리컨설팅이 『공공도서관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1차감리보고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디지털자료실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지침서 작성과 운영교육 필요,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보완 필요, 보안시스템의 안정성 미흡,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사업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확충,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 구축, 어린이용 콘텐츠 확보,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국가자료종합목록, 목차, 원문 DB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구축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축된 디지털자료실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장애인과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연계될 문고를 고려한 지역단위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지역

대표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 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체계 강화 등의 추가적 사업이 요구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1인당 장서가 채 한 권이 안 되고, 사서 1인이 4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며, 1관 당 봉사대상인구가 10만명 이상이나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장서 수 뿐 아니라 인력, 예산 등 대부분이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은 비록 디지털시대에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나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정보·문화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장서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적인 사서 확충과 도서관 신규 건립의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3.2.3 대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은 1997년 당시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첨단학술정보센터를 주체로 하여 국내 모든 대학의 학술정보DB를 통합 및 교류하는 국가학술정보망 구축을 지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부터는 홍익대를 필두로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경북대, 전북대, 한성대, 명지대, 동국대, 국민대 등 20여 대학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했거나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실시되는 대학 종합평가에서 디지털도서관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은 학위논문과 자체발간자료를 중심으로 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한국도서관협회 2001, 250), 학술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이라는 근본기능 때문에 대학간 상호협력이 일찍부터 요구돼 국가지원을 받는 공동프로젝트 형태나 대학별 자금출원에 의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원문제공 신청을 대학 내의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기관(KERIS)의 원문제공시스템을 링크시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디지털도서관 연계 사업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 소장자료DB(서지, 권호소장, 기사색인) 구축 사업, 해외학술지 종합목록시스템 개발, 학위논문서비스, 학술지 소재 정보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학술분야 콘텐츠에 대한 국가 디지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술정보공동이용 현황은 2002년도 6월 도서종합목록이 322개 대학, 학술지 41개 대학, 학위논문 33개 대학, 상호대차 264개 기관으로 도서종합목록과 상호대차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합목록 서비스의 경우 국내는 588만건, 국외는 4,600만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정보 현황은 국내 학위논문이 76,000건, 국외 학위논문이 17,000건, 학회지가 115종, 논총이 600종, 권호정보가 250만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외DB 공동구매 현황은 1999년에는 36개 기관이, 2000년에는 78개 기관이 2001년에는 1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ERIS

2002b). 사업내용도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사업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유통체제를 KERIS를 중심으로 Portal Site화하여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역할 조정도 하였다. 2003년에는 전국 대학도서관 서지DB, 권호소장DB, 기사색인DB, 원문DB구축과 구축된 DB의 통합, 데이터 품질 검증 및 통합,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및 통합검색 시스템 보완, 데이터 입력 및 기술 표준안을 작성한다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이 대학평가와 함께 도서관의 절대적 가치기준으로 군림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과정 속에서 필요에 의해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대학구성원에게 양질의 학술, 연구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 즉, 장서확충, 예산확보, 사서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3.2.4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학교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2000년 3월 마련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 중 교육정보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2001년 6월에 정보화촉진기금 관리 기관(한국정보문화센터)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디지털자료실 시범구축은 219개교로 총 4,11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 중 국고(정보화촉진기금)가 2,054백만원(시·도교육청 평균 128,375천원), 지방비가 2,056백만원(시·도교육청 평균 128,475천원)소요되었다. 시범구축 선정 학교는 전담 사서교사가 있어 사업 내실화 및 향후 관리가 용이한 학교,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활용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학교,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향후 거점학교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학교규모, 학급 수 등이 큰 학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001년에는 시·도교육청 당 6개교씩 총 96개교의 학교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국립 4개교를 포함한 119개 초·중등 학교에 '디지털자료실'을 시범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간 호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공동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PC(91교 1,034대) 및 서버구입(31교 38대), 네트워크 공사(74교) 및 네트워크 장비(HUB 74대, LAN 카드 230개) 구입, 서가(513개), 테이블(826개), 의자(1,936개) 등 비품 구입,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46교정도) 구입 또는 기능향상, 기타 디지털 콘텐츠, 도서 등을 구입하였다(이소영 2002).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264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6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별 자료관리 수서, 목록, 대출, 검색, 종합목록 구축 및 독서교육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구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산과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모든 시·도

교육청에 설치될 것이다.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는 향후 단위 학교도서관의 수서, 목록,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연속간행물관리, 기사색인, 검색, 통계·관리시스템 등의 작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센터에 접속하여 처리하고, 종합목록 및 통합검색 서비스 기능도 지원하여 이용자는 이용자 소속 학교의 자료만 선택하여 검색해 볼 수도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자료만 선택하거나 교육청 소속 모든 학교의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서지정보, 소재정보, 원문정보의 검색뿐만 아니라 DB분산 통합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인근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자료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

위의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현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야말로 교실을 개조하여 컴퓨터를 몇 대 더 들여놓고 LAN을 통한 인터넷 접속설비 정도를 추가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장서, 사서교사의 절대 부족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PC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PC방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해 본 학생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2.5 과학기술분야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과학기술분야의 디지털도서관 사업은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으로 분담목록이 구축되어 왔다(한국도서관협회 2001, 252). 또한 연구보고서와 자체발간자료 중심으로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시행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1, 25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기관으로 2001년 1월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통합되어 새로 발족한 기관이다. 국가 디지털도서관 사업 기관 중의 하나로 전문 도서관 분야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DB 확충, 정보유통 활성화, 정보분석, 정보자원, 지식 정보인프라연구, 초고속연구망, 슈퍼컴퓨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국내 150개의 학회지 원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과학기술분야 약 2만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목차정보, 국내 약 260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국가종합목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집되고 있는 단행본, 보고서, 회의록, 연감류 등의 목록정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원문정보, 특허청에서 발행되는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에 수록된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1).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과학기술정보 연계활용 및 서비스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서비스 및 고객지원, 해외 기술정보 연계활용체제 구축, 국가고유정보 연계활용 체제 구축, 정보자료 공동 활용체제 구축,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정

보유통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에 총 62,26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과학기술부 2002).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 전자도서관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총 129억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전자도서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통합과학문헌(e-GateDB)구축시스템 개선, 국가전자저널컨소시엄인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운영,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전자저널 확대, 출판사와의 컨소시엄 참여조건 협상 등이 추진되었다. KESLI 컨소시엄은 2002년 2월 현재 25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저널은 4,518종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기업체, 기타기관 순으로 많다(KESLI 2002). 2001년 5월 16일부터는 해외 학술지종합포탈서비스를 지향하는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학술지 목록 3만 5천종, 저널수록 논문정보 1천2백만건, 권호정보 200만 이슈, 270개 협력기관 소장정보 5백만 이슈, 전자원문 링크정보 저널 6천종, 권호 25만건, 논문 300만건을 서비스하고 있다(국가전자도서관 2002). 이는 국가전자도서관 사업과도 연계되어 추진 중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총 7,920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보자원의 지식체계구축을 통해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 중 이용도 높은 학술저널 특히 전자저널을 전략적 콘텐츠로 삼아 먼저 유통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문헌

정보의 One-Stop 통합검색, 전산인프라 구축, 전국적인 원문전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KESLI 사업모델과 개인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완성하고 해외 학술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KAIST내 고급 연구인력의 정보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발에 반영한다는 계획 등도 추진될 것이다.

한국광주과학기술원(K-JIST)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45백만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 선진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DB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DB의 지속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고, 기 구축 운영중인 DB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개발한 도서관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시스템을 도서관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구축한 학술문헌 DB 및 도서관 협력망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 2002).

과학기술 분야의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은 보다 특화된 전문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정보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순한 복사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속보성의 가치가 높은 회색문헌의 수집, 인쇄 및 전자형태의 하이브리드 장서구축으로 정보자원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 전문인력과 전문정보센터를 과학기술 부문별로 특화시켜 신규 데이터베이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생산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전문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원문제공, 참고서비스, 정보교환, 정보공유 등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전문 분야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추진되어 왔다. 물론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의 신속한 정보습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이외의 전문도서관 분야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기업, 정부 등 모든 사회요소가 축소, 폐지되는 중에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전문도서관은 정리대상 1호로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다(김익철 1999). 또한 전문도서관에서는 타 기관 자료에 대한 소장처 문의가 다른 관종보다 많다. 이것은 전문도서관 소장자료의 제한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전문 분야의 도서관은 정보량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 사서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정보공유체제의 미비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문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전문사서와 수 백 여종의 기술잡지, 프로시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규모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 전제조건

을 갖춘 후에 전문도서관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해 기관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전문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2.6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한국점자도서관은 1999년 7월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약 7억을 투자해 2002년 7월부터 12월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여 시각장애인 및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정보의 빈부격차 및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8월 2일 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은 점자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점자·음성도서관의 제작·소장 정보 공유 등의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점자도서관은 도서관의 숫자나 자료의 질적인 면, 전문인력에 있어서 대부분 열악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장애에 대응한 자료의 확충, 담당 사서의 장애인 봉사에 대한 계속 교육,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3.2.7 표준양식개발 사업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이루어진 1·2차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에서는 분야별 특화분야 구축자료를 위한 표준 문서양식을 개발하였고, 검색표준프로토콜로 Z39.50을 사용하였으며, DB구축 기본포맷

으로 SGML을 사용하였다.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으로 문자세트 표준은 KS C 5601을 사용하였고, 자료형식표준으로 목록데이터는 KORMARC UNIMARC, 아스키는 SGML, 이미지흑백자료는 TIFF, 컬러자료는 GIF·JPEG, 동화상이나 음성·음악은 MPEG으로 표준화하였다. 2000년에는 학술문헌 종합목록과 KAIST의 통합과 학문헌 연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형식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1년에는 문헌정보처리 표준화를 위해 자료별로 다른 형식 표준을 단일체제의 KORMARC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지식자원관리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식정보관리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저작권 관리방안 기술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심효정 2002a).

2002년, 2003년에는 정보화업무 표준을 위해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 적용, 소장정보 KORMARC 형식 적용, 정보화 기반 표준을 위해 통신은 인터넷, 초고속 국가망 이용, TCP/IP 프로토콜 이용, 시스템은 OS로 UNIX, NT를 사용한다. 또한 학술지 메타데이터, 학술지 권호정보, 소장정보, 학술논문 메타데이터, 학위논문 메타데이터 표준안 보완 및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학술논문 원문은 기존의 TIF 및 PDF 포맷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XML 포맷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술정보 서비스 유관기관도 PDF 및 XML을 기반으로 한 원문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프로토콜은 정보 검색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Z39.50)으로 구현하여 이 기종의 DB를 검색하도록 한다. 기 구축된 타 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ISTI 등)의 관련 DB 통합검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주제 분류표준화는 다양한 DB를 공통 주제별로 검색하기 위한 주제 분야 분류 표준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일관된 학술연구정보 디렉토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문화관광부 2002. 9).

3.2.8 관리체제경비 사업

관리체제정비 사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서비스확대,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도서관정보화 관련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육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확대 사업으로는 2000년에 목록 및 목차의 검색과 열람 서비스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열람 추진,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유료 원문열람 대행기구 구성, 최소비용으로 국민 개개인이 민간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에는 주요어 및 초록 열람서비스를 실시해 대량의 지식정보자료를 용이하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다루고 있다. 또한 참고봉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우편 및 실시간으로

이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였다. 디지털콘텐츠 활용의 고도화 및 이용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모바일서비스, 무선랜서비스,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시범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Products)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장서점검,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참고봉사, 맞춤형정보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한다. 군부대 등에 도서관(자료실) 설치를 확대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문화관광부 2002. 9).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사업은 디지털정보 공급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정보의 검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용어사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다국어 사전 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외국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사업내용도 포함한다.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체계화하여 가치 있는 지식정보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전문사서에 의한 디지털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 역할 수행,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디지털도서관이 제공하는 고품질 지식정보 활용 계획도 주된 사업 내용이다. 또 지식정보자원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접근체계를 개선하고 온라인유통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밀레니엄 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도서관의 모델로 육성함으로써 도서

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나아가 10여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6년까지 첨단 도서관시스템을 구축, 선진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문화관광부 2002. 8).

정보화관련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육성 사업은 문헌자료 DB구축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사서 인력에 대한 정보화 특별 연수를 실시하며, 각종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민간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서 자격제도 개선으로 전문적인 디지털 지식정보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추진 및 자원봉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별 참고봉사 등 사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3.3 법적 장치

도서관관련 최초의 법은 1963년 10월 28일에 제정된 도서관법이며, 정보화와 관련된 조항을 처음 명시한 법은 1987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도서관법이다. 제16조 1항 4에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확충이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중요한 점은 제9조의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제10조의 도서관진흥기금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1991년 3월 8일에 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제16

조 1항 5에서 전산화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명시하고 있다. 1994년 3월 24일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이전 법의 제9조와 10조의 명칭을 제9조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과 제10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그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전산화에 관련된 항목 또한 제16조 1항 5에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었다(한국도서관협회 1998).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는 정부의 각종위원회 통·폐합 조치에 따라 그동안 도서관정책자문기구였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도 폐지하였다. 2001년 3월 8일에 21세기문화정책위원회가 문화관련 분야의 정책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나, 문화관련 전 분야를 총괄하는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관련 종사자가 한 명도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말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용남)가 구성되어 다소나마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다.

2002년 말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보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이 학습관, 정보관, 정보센터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적용대상의 혼선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온라인저작물의 납본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

도서관의 운영주체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2000년 1월 12일 개정하면서 제18조 2항에 온라인 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과 제 28조에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3조에서 도서관에서의 도서 등의 디지털 복제·전송 관련 규정과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현재는 전송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문제에 대한 협상은 디지털도서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의 소장기관과 생산기관간의 협조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소장기관 위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 것은 문제거리가 된다. 대량의 자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처리를 하지 않고 디지털화한 자료들도 있어 이미 구축된 적지 않은 원문DB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상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이용자의 편의만을 생각한 결과로 앞으로는 대학의 학위논문 관리와 마찬가지로 학술자료 생산기관 중심의 저작권 관리와 디지털 파일에 대한 관리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사실 자금의 문제로 귀결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 저작권법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 관련기관들과 유대관계를 맺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담할

전문가와 정부출연 공공기구를 설립하며 저작권법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협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CCC, 캐나다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청 등과 같은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육성하여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및 원문 서비스에 필요한 저작권을 해결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저작권이 없는 경우 즉, 개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 정기간행물 발행주체기관에 일정 금액 및 활동을 보조하여, 정보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학술지 발행 주체가 원고의 투고 전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데이터를 송부 받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KRF)과 업무협약을 통한 DB갱신 및 유지를 원활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2a). 디지털 납본 제도는 생산기관 중심으로 연구논문 등을 디지털로 납본하도록 정비하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디지털화 작업 및 서비스 체계를 지원토록 정비하여, 해외도입 과학기술 문헌의 원문 제공 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에 관련된 최초의 전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은 1995년 8월 4일에 제정하였고, 1999년 1월 21일에 개정되었다.

정부는 2000년 1월 28일에는 지식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지식산업의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계획안에서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지식정보자원의 수집·활용, 자유로운 접근·이용·표준화 등을 위한 시책강구를 규정하였다.

정부는 각종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전 과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수집 및 축적의 제도화로 기존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정보 수집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는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수집의 제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자원관리법 정비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의 법 개정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내 행정조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박물관과가 중심이 되고 있다. 2001년 1월 29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인적자원정책국을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로 나누어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지원 업무를 인적자원정책국 조정2과에 배정하였다.

4. 결 론

디지털의 물결은 그 동안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던 도서관을 '도서관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전면으로 등장시켰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관종의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했거나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고,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실현 및 고품질의 지식정보로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도서관 이용을 통한 신지식인 사회 실현 및 정보화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의 인쇄매체와 함께 다양한 전자매체를 수집·가공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의 평등성 보장과 정보획득에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정보환경 조성을 위해서이다. 결국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얻으려는 것을 집약해보면 디지털도서관의 특징인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를 도서관 정보환경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기존 도서관의 본래 의미를 잃은 채 정보화

만을 쫓아서 기술적인 문제만을 운운하는 디지털도서관 구축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보화 과정은 반드시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디지털도서관 사업이 겉모습만 더 커지기 전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도서관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실물장서를 보유하고, 동시에 원격의 전자 자원에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함께 하는 도서관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디지털도서관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추진, 공공도서관의 각종 지원정책 추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 추진, 시·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 협력망 및 정보화 추진,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 운영, 학교·대학도서관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관리·운영인력 확충, 학교·대학도서관 정보화 추진, 교육과정과 독서진흥의 연계 계획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전문도서관 활성화 지원, 재정계획의 합리성 검토 및 예산지원, 군대내 도서관(자료실) 설치 추진, 어린이도서관 사업,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 확충, 공공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투자확대 협조,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전문직 임용 확대 추진, 과학도서관 등 전문도서관 육성 지원, 공

공· 학교도서관, 문고 정보화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해 디지털도서관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명확히 확립시켜 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디지털도서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0. 9. 『2001년도 과학기술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2001. 『2002년도 과학기술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2002. 『2003년도 과학기술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과학기술부.
- 공공전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서울 : 공공전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교육부. 2000. 9. 『2001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서울 :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2a. 『2003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2b.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자료실 시범 운영 세미나 자료집』.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인정정책국. 2002. 8.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2002. 11.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안)』. 서울 : 교육인적 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 국가전자도서관. 2002. 사업소개, 추진현황, 참여기관, DB소개. [cited 2002. 8. 11]. <<http://www.dlibrary.go.kr/NDL/HTML/doc/cejint.html>>.
- 국립중앙도서관. 2001. 『2001 도서관 정보화 사업 설명회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 1997.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시안)』.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첨단학술정보센터.
- 김익철. 1996. 디지털라이브러리 희망인가 환상인가?. 『디지털도서관』, 2 : 72-79.
- 문화관광부. 2000. 9. 『2001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1. 9a. 『2002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1. 9b.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수립 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2. 8.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2. 9. 『2003년도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2002. 7. 28.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서울 : 정보통신부.
- 심효정. 2002a. 『한국의 도서관정보화 정책

-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심효정. 2002b. 디지털도서관의 허와 실. 『도서관』, 57(3) : 3-23.
- 이소영. 2002.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시범 설치·운영. [cited 2002. 6.1]. <http://www.madang21.or.kr/2002_05/html/theme3.htm>.
- 이용훈. 2000.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55(4) : 3-33.
- 이종문. 2001.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도서관』, 22 : 135-142.
- 정보통신부. 2000a. 『2000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000b. 『2001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001. 『2001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002. 『2002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002. 1. 『2002~2006 정보통신부 정보화종합계획』. 서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2003. 『2003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서울 : 정보통신부.
- 최석두. 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 동관.
- KESLI. 2002.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엄 (KESLI)의 효과. [cited 2002. 8.16]. <http://www.kesli.or.kr/consortium_intro2.ht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a.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b. 학술연구정보공유체제구축. [cited 2003. 2. 1]. <<http://www.keris.or.kr/management/product.jsp?layerNo=manleft3>>.
- 한국도서관협회. 1998. 『한국 도서관 법령집-최근 입법부터 현행법까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1. 『한국도서관통계 2001』.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한국정보감리컨설팅(주). 2001.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1차감리보고서』. 서울 : 한국정보감리컨설팅(주).